간단 자기소개서\_손정우

 -------------------------------------------------------------------------------------------------------------

* 방황의 끝에서 만난 개발자의 길

음악을 업으로 삼기 위해 대학을 실용음악과로 진학하고 졸업했습니다. 앞으로 꿈 같은 뮤지션의 삶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 했지만 뮤지션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생각보다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수입없이 일용직이나 공장을 전전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난 뮤지션이니까 괜찮아.’ 라며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모든 과정은 실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블록체인 기술을 알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다가 개발자라는 사람들이 만든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개발자가 하는 일은 제가 좋아했던 음악을 만드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이리저리 조합해보고, 좋지않은 음의 배열을 찾아 내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제가 좋아했던 음악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느꼈고 또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음악에 빠졌듯이 개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사랑했던 것처럼 이제 개발을 사랑할 것 입니다.

* 성격 및 장단점

(장점)

어릴 적부터 깔끔하고, 낙천적이고, 사교성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도 쉽게 어울렸으며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특유의 친근함으로 해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료 중인 과정에서 팀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데이터베이스 설계로 인한 작은 마찰이 있었지만 저를 포함한 팀원들의 의견을 묻고 취합하여 장단점을 도출해낸 뒤 팀장에게 제시 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초기에 제가 제시했던 설계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고 이를 적극 수용하였으며 결국 프로젝트가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의 성격은 개발을 하면서도 드러났습니다. ‘내가 보기 편해야 남들도 보기 편하다.’ 라는 생각으로 항상 담당한 임무를 끝마치면 어지러운 코드를 보기 좋게 정리하고 꼼꼼히 주석으로 메모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담당했던 기능들을 보다 쉽게 설명 할 수 있었고 이해시킬 수 있었습니다.

(단점)

하지만 저는 다소 급하고 멀리 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작은 마찰은 제가 우리의 프로젝트를 멀리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위해 무언가를 시도하기 전 세번의 고민을 해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기능을 구현하기 전 테이블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기능이 구현될 위치를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방법이 효율적인지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이 전의 저 라면 ‘기능 생각 -> 시작’ 의 형태로 진행했기 때문에 진행 과정 중 문제가 생기는 일이 빈번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번의 고민 덕에 오류발생률도 현저히 줄어 들었고 급한 성격도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 업무역량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교육 기간 중 저는 특별히 우수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후부터는 모르는 기술을 다뤄야 한다면 정규 시간 이 외에도 몇시간이고 남아 저의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 하였으며 그러한 과정 중에 다소 느리지만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익숙함에 속지않는 사람)

새로운 언어와 기술을 배우는데도 걱정이 앞서기 보단 설레는 마음이 더욱 컸습니다. JAVA만을 다루다가 PYTHON을 다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접해보지 않았던 언어와 기술이다 보니 손에 익지도 않고 한번에 이해 하기가 어려웠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오히려 저를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개발자가 되려면 끊임없이 공부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업무상 필요하다면 어떠한 기술이나 언어를 요구 하더라도 걱정보단 설레는 마음을 앞세워 배움에 거침이 없는, 기대에 부응하는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

아무리 뛰어난 실력과 기술을 겸비하였다 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이 원할 하게 이루어 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일이 그러하듯 혼자 일을 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협업을 진행해본 경험이 다수 있었던 저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팀원들과의 소통부재가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팀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할하였고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시 적극 소통하여 추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앞으로 저의 개발자 업무 역량에 분명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분야나 상황에서도 곧바로 적용 가능 하도록 준비가 되어있습니다.